

특 집 I / 남북통일 후 의료문제와 대처방안

북한의 의학교육 및 의사자격 인정문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후 몇 차례 이산가족 방문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남북한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의 교류과정 중에 가장 먼저 접촉이 시작되고 해결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로 의료 분야가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월 말 평양을 방문했던 이산가족 방문단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방문단 중 한 사람이 탈진되어 평양의 친선병원에 입원하였다. 방문단에는 남쪽에서 따라간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와 친선병원 의사 사이에 진료의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관심이 간다. 혹시 의학용어가 서로 달라 마치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난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는지도 궁금하다. 또 하나 우리 정부는 치료를 담당한 평양 친선병원의 의사들을 남한의 의사와 같은 의사로 여겼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의사로 여겼기 때문에 치료를 맡겼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그들 중 어느 누가 남한으로 귀순한다면 남한 정부가 그를 의사로 인정할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형 우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hwoopark@yumc.yonsei.ac.kr

이 사례는 통일 과정 중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바로 경험하게 될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도 불확실한 시점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확실히 통일되어야 닥칠 문제들이 의료 분야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자격 인정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핵심용어** : 북한의 의학교육, 북한 의사의 수련, 북한 의사의 자격 인정

기준에 북한의 의학교육에 관해서는 몇몇 제한된 보고들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 정확한 실상을 알기란 쉽지 않다.

통일 후 남북한의 제도 통합에는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위 통일 비용인 것이다. 인문 사회과학의 경우 기존 교육 배경의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배운 지식을 전혀 활용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자연과학, 특히 의학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의사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련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또한 이들 전문 의료집단은 사회의 다른 집단에 비해 사상적으로도 비교적 엄매여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양쪽 의료체계, 보다 근본적으로 의학 교육체계를 정확히 비교 분석하여 우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절차로 남한의 의사와 같이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과정 중 나타날 진통의 최소화는 물론, 통일 비용의 절감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의학 교육제도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교육이나 수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 의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의료(보건)일군의 정의 비교

북한에서 사용되는 의료(보건)일군의 정의에는 의사, 구강의사, 고려치료의사, 위생의사, 약사, 준의사, 간호원, 방법사(의료 보조원 및 의료기사) 등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의사’란 용어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일정 수준의 의료 교육을 받고 해당 지역이나 병원 등에서 의사의 직능을 수행하는 자를 모두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의사, 구강의사(치과의사), 고려치료의사(한의사) 등은 남한의 의료인과 비교가 쉽지만 위생의사와 준의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명칭에 의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1. 위생의사와 준의사

위생의사는 6년 6개월 과정(예과 1년과 본과 5년 6개월)의 의학대학 위생학부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산업 보건이나 방역 업무와 관계가 있어 남한으로 치면 예방의학 분야의 전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환자 진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준의사는 4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 혹은 의학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의사와 간호원의 중간단계인데, 의료 취약지로 파견되어 의사의 직능을 수행하며 대학병원같은 큰 곳에서는 간호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 준의사를 배출하는 기관의 명칭이 과거 의사 배출기관이었던 ‘의학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 의학전문학교는 남한의 보건학과 혹은 보건전문학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생의사와 준의사는 남한의 기준으로 볼 때 의사로 분류할 수 없다. 물론 위생의사가 병원의 임상 분야에 배치되어 오래 경험을 쌓으면 해당 분야의 의사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 있고, 준의사도 야간교육이나 통신교육 등 소정의 과정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사가 되었더라도 정규 의학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된 경우보다 실제 능력도 떨어지고 의사 급수도 높지 않다.

2. 의학단과대학

또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은 1980년대 중반 설립된 의학단과대학이다. 1985년 현재 새로 생긴 학교로 평양외과단과대학과 남포의학단과대학이 있는데, 평양외과단과대학은 평양 모란봉의학전문 학교가 개칭된 것이다.

외과단과대학에서 의사와 준의사의 중간 정도인 4~5년 과정을 끝내면 ‘외과의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외과의사’라는 명칭에 유의해야 한다. 외과의사는 남한에서처럼 외과 전문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 외과 영역의 진료만을 할 수 있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학단과대학을 남한의 정규 의사와 같이 취급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인민의사와 공훈의사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1980년 3월 15일 제정된 인민의사와 이보다 약간 격이 떨어지는 공훈의사이다. 이 칭호는 기술 수준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과 정부에서 명예로 수여하는 것이며 때로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받기 때문이다.

의학대학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북한은 1·4·6·4제로서 유치원 학년전 교육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으며, 남한의 6·3·3·4제와 비교하면 1년 정도 어린 나이에 의학대학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1. 북한의 의학대학

북한은 남한의 의과대학 대신 의학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이것은 의학대학에 약학부 및 동의학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 따라 위생학부도 설치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는 11개의 의학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양의학대학(1933년 창립), 함흥의학대학(1944, 현 정성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1948, 현 경성의학대학), 해주의학대학(1959, 현 장수산의학대학), 신의주의학대학(1968, 현 광제의학대학), 강계의학대학(1968, 현 인풍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1969, 현 송도원의학대학), 사리원의학대학(1969, 현 강건의학대학), 혜산의학대학(1970, 현 가림천의학대학), 평성의학대학(1970년 중반, 현 봉화의학대학), 그리고 군의대학 등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추적인 평양의학대학은 현재 6개의 학부와 1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학부는 기초의학부, 임상의학부, 고려의학부, 구강학부, 약학부 및 위생학부이며, 1개 학과는 기초학과이다. 기초의학부는 1970년대 중반 설치된 것으로 원래 기초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모든 강의 및 실습 내용이 임상의학부와 동일하며 졸업 후에도 임상 의사가 될 수 있다.

2. 의학대학생의 구성

의학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배경을 살펴보자. 평양의학대학의 경우 아무래도 평양 출신 학생이 많지만 각 지방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자는 추천과 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을 직통생이라 하며 한 해 입학생 약 250명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학생의 약 30%는 군인 중

에서 부대의 추천으로 합격되는데 직통생보다 10살 정도 많다. 나머지 약 5%는 일반 직장 혹은 다른 보진 일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들어온다. 남녀의 비를 보면 35~40%가 남학생이고 60~65%가 여학생으로 대체로 남한에서와 반대라 볼 수 있다.

3. 의학대학생의 교육과정

의학대학생들은 7년 6개월의 교육을 받는데 배우는 과목은 대체로 남한과 유사하지만 사상 교육과 관련된 여러 과목을 배우며 또한 동의학 강의도 받는 점이 다르다. 강의는 90분간이며 하루에 2~3번의 강의를 이루어진다.

1) 예과 교육

1년 과정의 예과 교육은 기초학과가 많으며 사상 교육과 관련된 혁명 역사, 김일성 노작, 주체철학, 당정책, 혁명의사 등의 과목 이외에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및 외국어 등의 기초 학문을 배운다. 외국어는 예전에는 러시아어를 주로 배웠지만 지금은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2) 기초 의학

6년 6개월의 본과 중 학교에 따라 첫 2~3년 동안 기초 의학을 배운다. 역시 사상 교육과 관계된 과목들이 있으며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태생리학, 병리해부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및 위생학 총론 등을 배운다. 강의는 각 대학 자체에서 마련한 간단한 교안을 이용한다. 고등교육출판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교과서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며, (주로 졸업한 의사들을 위해)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발행된 다양한 책들도 있다.

강의는 우리말로 진행하는데 의학용어를 설명할 때에는 영어, 러시아어 및 한자를 함께 제시해 준다. 1970년대 말 ‘의학용어 말다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졸업 후 기존 의사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용어를 사용하여 집필된 의학서적을 기존의 의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각 의학대학에 지침을 보내 기존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의학용어들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의학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평균 25명이 하나의 학급(반)으로 편성되는데, 강의는 모든 학급이 함께 모여 듣지만 해부학 등의 실습은 학급별로 진행한다.

3) 임상 의학

본과의 나머지 3~4년 동안은 임상 의학의 각 분야를 학급 단위로 강의, 임상 실습 및 시험을 통해 그 분야를 마친 후 다음 분야를 배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목은 남한과 거의 유사하지만 동의학 및 구강총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하나 군진의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의 의학대학생들은 졸업 후 군의관으로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은 군의대학 졸업생이나 혹은 다른 의학대학 졸업생 중 자원한 자로 채워진다.

본과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생산 실습을 하는데, 남한으로 치면 일종의 인턴 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졸업 및 국가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보건성의 위임에 의하여 각 의학대학에서 졸업시험의 형태로 치루어지는데, 이를 통과하면 의사가 된다. 그런데 따로 의사 면허장은 없으며 다만 졸업장에 어떤 과정을 끝냈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다.

북한에서 의사가 되는 길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은 정규 11개 의학대학을

입학하여 의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교육은 교육성이 주관한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1. 의학대학 야간교육

보건성 대학지도국에서 관리하는 이 과정은 준 의사, 간호사 및 방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입학 하며 과정은 4년이다. 이들은 낮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저녁 6~11시까지 의학대학에서 수업을 받는다. 강의록은 정규 학생용 교재를 2/3 정도로 압축한 것인데 전 과정을 끝내고 졸업시험에 통과되면 해당 의학대학 졸업증에 야간 과정이라 적는다. 평양의학대학에는 1980년대 중반 이 과정이 없어졌으며 현재 지방 의학대학에만 이 제도가 있다.

2. 의학대학 통신교육

역시 보건성 대학지도국에서 관리하는 이 과정은 준의사, 간호원 및 방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입학하며 과정은 3~4년이다. 매년 약 3개월씩 해당 의학대학에 와서 통신용 강의안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 전 과정을 끝내고 졸업시험에 통과되면 해당 의학대학 졸업증에 통신과정이라 적는다.

3. 의사 검정고시

의학대학 졸업시험에서 낙방한 자는 3년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한 군에 입대한 경우 제대 후 검정시험의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4. 북한에서 졸업한 의사가 가는 길—남한의 전문의 제도와와의 비교

북한에서 정규 의학대학 과정을 마치고 일단 의사가 되면 크게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들어간다. 가장 많은 것이 의학대학병원을 포함한 도(道), 시(市) 급이나 중앙(中央) 급 병원에서 환자 진료만 하는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경력에 따라 급수를 부여받는다. 가장 낮은 단계가 6급인데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받은 자는 6급 의사로 직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고 의사급수 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되고 처음 배치받은 전문 분야를 평생 전공하게 된다.

의사보다 한 단계 높게 대우받는 것이 임상연구사인데, 자기 전문 분야의 환자만을 보며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사보다는 환자 진료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고 나머지 시간에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가장 대우받는 것이 교원이다. 이들은 일반 의사보다 대체로 한 급수 높게 발령받는다. 또한 학생 교육 및 임상 연구와 함께 병원에서 환자도 본다.

따라서 의학대학의 경우 같은 졸업생이지만 의사, 연구사 및 교원의 세 부류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는 남한과 직접 비교될 만한 제도화된 전공의제도가 없고, 대신 의사 급수라는 좀 다른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도 남한의 전문의와 유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선 각 의학대학에는 각 전공 과목, 혹은 세부 분야의 교원들이 있다. 이들은 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조교원 등으로 불리며 환자도 전문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계된 환자

만 본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반에서 1~2년의 전문과목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급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며 정규 의학대학을 졸업한 경우 대개는 처음 배치받은 분야를 평생 계속하게 되므로 이들도 어느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일종의 전문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일부 의사는 졸업 후 학위과정을 밟는다. 현재 북한에는 후보준박사, 준박사 및 박사 학위가 있다. 후보준박사는 대학졸업생 중 가치 있는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칭호로서 졸업하면 의사 급수를 한 등급 높여 받는다. 준박사는 남한의 석사와 유사한 학위로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교원 및 연구사 포함)로서 박사원의 준박사반에서 3~4년 과정을 거친다. 학위는 문 제출자격시험(5개 과목)에 통과된 자는 제출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되거나 교재, 참고서를 집필한 후 심사를 거쳐 통과된다. 박사는 준박사의 학위를 취득한 후 전공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적어도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을 체계화한 자가 2~3년 과정의 박사원을 마치고 관계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면 수여된다. 박사원을 졸업할 때 20~30명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위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수여한다.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이 박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한의 박사보다는 훨씬 얻기 힘들다. 이런 학위과정 중에 자연스레 전공과목이 정해지며, 많은 경우 임상 분야를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준박사를 마친 의사들은 일종의 전문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학위를 받으면 의사의 급수도 올라간다.

이 외에 각종 전문병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평양산원, 간염병 예방원, 전염병 예방원, 결핵병 예방원 등에는 많은 전문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와 같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소정의 절차로 이들이 전문의로 인정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맺 는 말

이상에서 북한의 의학 교육제도 및 졸업 후 행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선 의사로 인정할 수 있는 북한의 의사는 정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급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통일 한국의료법이나 보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경우로 국한할 수 있겠다. 나머지 의사들은 한지의사 형태로 현재의 직위를 인정하고, 국가시험 지원 자격을 부여하여 이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전문의로 인정할 수 있는 북한의 의사는 정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급 이상의 병원에서 의사 3급 이상인 자, 각 의학대학의 상급교원 이상인 자, 그리고 준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일 것이다.

몇몇 자료를 통해 이상과 같이 북한의 의학교육과 의사 인정문제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추후 자료 보충을 통해 보다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현철, 윤동환, 이윤이, 양은주: 북한의 의료인력 양성제도 고찰. 의학대학을 중심으로. 손명세 등,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서울, 1999; 143-181

2. 김형찬: 북한 교육 발달사. 한백사, 서울, 1988
3. 문옥륜 외: 북한의 보건 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 1989
4. 박윤재,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1998; 7: 63-76
5. 박형우, 여인석, 노재훈: 북한의 의학 서적. 의사학 1995; 4: 175-177
6. 변종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 실태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서울, 1989
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
8. 조선중앙통신연감
9. 귀순의사 인터뷰

◎ 주소 이전 회원에게 알림 ◎

지금까지 **협회지나 의협신보**를 수취하던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변경 즉시 인적 사항(면허번호, 성명, 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 아래 주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전산실 전화 794-2474(交: 230~232)